

2021. 교육과정 설명회

-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2.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가정 양성 평등 교육
3. 생명 존중 및 학생자살예방 교육
4. 인권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5. 교권보호 학부모 연수자료
6. 차지 및 불법 찬조금 금지 교육(청렴교육)
7. 공교육 정상화법과 선행학습 규제 안내
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
9. 장애이해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10. 흡연예방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11.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12. 감염병 예방 학부모 연수자료
13. 학교생활기록부 개정사항 및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안내
14. 개인정보보호교육·사이버폭력예방교육·정보통신윤리교육

이 리 부 천 초 등 학 교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해 및 절차 안내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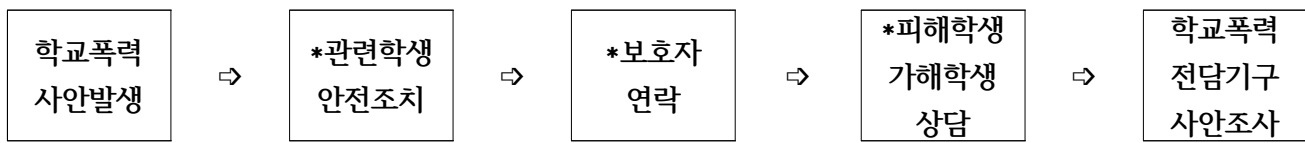
2 학교폭력 신고주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자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교직원, 학생, 보호자, 기타(관련학생 형제, 자매, 친척, 주민 등) 모두 해당)

♣ 학생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신고 방법 ♣

부모님, 담임선생님, 학교폭력신고함(교무실-교장실 사이), 117, 핸드폰 문자신고 #0117, 학교폭력 설문조사

3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및 조치방법



♣ 주요 대상별 조치 ♣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구 교사에게 신고한다.

피해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할 때에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가해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 가해학생에 낙인을 찍거나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사안발생 직후 진술서를 바로 받는 것이 좋다.
보호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린다. -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축소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유사한 폭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거나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바로 '목격자 확인서'를 받는 등 대처에 들어가야 한다.(서로 다른 공간에서 받는 것이 내용 기술에 도움이 된다.)



2.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가정 양성 평등 교육

I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테스트

▶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위의 8개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



※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II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성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법을 알고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으면, 숙지해야만 합니다.

좋은 부모,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모, '질문이 많은' 부모는 성폭력 가해자를 제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준비를 하는 부모는 위험이 아이에게 닿기 전에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아이가 홀로 싸우게 두지 말고 부모가 먼저 방어해 주어야 합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1 부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① 아이와의 건강한 양육방법과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 ②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상황에 따라 자기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③ 부모가 걱정되는 성적 행위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 발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 ④ 가해자의 위험신호뿐 아니라 피해 아이의 위험 신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가해자의 길들이기 과정(grooming)을 끊어주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입니다. grooming을 끊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의사소통은 성폭력에서 아이의 취약함을 줄여주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① 정기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 ②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대화는 이렇게 합니다.
 - ★ 적절한 시간을 선택합니다.
 - ★ 최근의 사건을 활용해서 대화합니다.
 - ★ 아이가 동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눈높이에 맞게 앉거나 바닥에 앉습니다.
 - ★ 부모의 생각과 감정을 아이에게 이야기 합니다.
 - ★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 냅니다.
 - ★ 평가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 비판과 지시는 피합니다.

※ 가해자들은 **길들이기과정(grooming)**을 통해 아동이 성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grooming이란 자주 마주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계획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가지게 한 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 우리 둘 만의 비밀이니까 꼭 지켜야 돼."라고 말하여 아동이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가해자의 길들이기 과정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

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이 집에 오면 **일상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부모님이 길들이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예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매뉴얼 이현혜>

3 건강한 성 발달에 대해 알려줍니다.

- ① 신체 부위의 올바른 명칭을 알려줍니다.
- ② 적정 연령이 되면, 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고, 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③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 ④ 학대가 무엇이고,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4 아이와 함께 안전 계획을 세웁니다.

- ①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규칙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사적 경계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도 안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 ② **불편하고 나쁜 감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 ③ 안전계획을 함께 해야 합니다.
 - ★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특정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부터 집까지의 안전지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그려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 어디에 있나 확인하고, 아동과 함께 들어가 운영자의 얼굴을 익혀둡니다.
 - ★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알려줍니다.
 - ★ 아이에게 알려주어도 괜찮겠다는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고, 아이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면을 익혀둡니다.
 - ★ 학교나 학원 등 귀가 통로 길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가게를 다니는지 알아 둡니다. 가게 주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면을 익혀 비상사태 시 아이 보호에 대해 사전에 약속을 해 둡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국번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
국번없이 117(학교폭력(성폭력)신고센터)
익산성폭력 상담소 : 834-1366
전북 해바라기센터(one-stop 지원센터)활용<의료,상담,법률지원>
: 063-278-0117, 전북대병원 지하1층

< 출처: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

III

가정 내 양성평등 교육**1.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 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2.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 강조함.
-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혹시 어른의 성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요?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직업상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높은 데까지 승진해야 한다. -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토라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 - 남자아이가 그것도 못하고 계집애처럼 울고 - 사내 녀석이 부엌엔 왜 들어와?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는 얌전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다. -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 - 너무 똑똑하고 건방져서 시집가기 어렵겠어 -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 미래의 인간상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3. 생명 존중 및 학생자살 예방 교육

학생 자살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동료교사 혹은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1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오해)과 진실

오해1	자살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나 단서도 없이 자살한다. (NO!)	진실1	10명 중 8명은 그들의 자살의도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들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의 자살 의도를 알 수 있다.
오해2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NO!)	진실2	자살생각이나 자살기도는 '도움을 찾는 외침'이다. 이 외침에 반응이 없으면 주목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시도하여 비극적인 결과로 끝맺을 수 있다.
오해3	특별한 사람들만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하거나 혹은 자살생각을 한다. (NO!)	진실3	자살 생각, 감정, 행동들은 모든 사회 계층, 종교집단, 연령층 혹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오해4	자살은 유전된다. (NO!)	진실4	자살자의 다른 가족이 자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유전적이기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오해5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NO!)	진실5	직접 내놓고 자살과 자살감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감성을 갖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당신이 그들을 보살피 주며, 도와주고,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된다.
오해6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우울증 환자거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NO!)	진실6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정신병을 가졌다고 진단을 내릴 수 없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립감을 느끼며, 극심한 불행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다. 자살 생각과 행동들은 그들이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스트레스와 상실감의 결과일 수 있다.
오해7	자살은 특수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매스컴이나 예술작품 속의 자살보도나 자살에 대한 서술은 실제 자살과 별 관련이 없다. (NO!)	진실7	유명인사의 자살이나 매우 선동적인 자살보도는 자살기도를 실제로 높이고 또 모방 자살을 많이 일으키게 한다. 자살에 대한 자세한 보도나, 자살방법에 대한 상세한 언급, 혹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순하고도 단정적인 설명, 자살자에 대한 불필요한 추모나 공경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



2 자살의 단서 (위험 경고)

구 분		단 서
언어적 단서	직접적 암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간접적 암시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행동적 단서		.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 유서를 써 놓는다. . 평소에 아끼던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준다. .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심해진다. . 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 학교에서 불안해하며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육체적 . 정서적 단서		.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 .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 . 외적 용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 대부분의 증상이 우울증의 증상과 비슷하다. 식욕부진

3 가정에서의 예방대책

-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를 지양한다.
- 가정의 고유기능을 발휘한다.
- 과도한 보호와 무관심을 지양하고 인내심, 극기심 배양과 생명존엄성을 고취시킨다.
-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준다.
- 감정 이입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자살 경고 신호가 느껴지면,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시도한다.
- 문제를 명백히 하고 결정적인 문제를 확인해라.
- 자살 이외의 대안적인 행동을 찾도록 제안한다.
-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심을 이용해라.
- 도움 가능한 타인을 활용하고,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한다.

우리 아이 칭찬 10계명

- ①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②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③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④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⑥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⑦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⑧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⑨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⑩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서 발췌



4. 인권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아동인권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 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 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 줍니다.

4.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감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5.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교권보호 학부모 연수자료

가

교권보호의 이해

근거

-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교권침해 예방 자료

●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 교권침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교육부 '학부모 교육자료' 내용 발췌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

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 대화의 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교육 및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서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부모는 학부모회 참여, 학교홈페이지 방문,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자료 열람 등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업에 참관하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녀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교사와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하기 편한 시간에 담임교사와 약속을 정하여 자녀교육에 대하여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가 학기별 1회 이상,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과 시간 외에 맞벌이 부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 토요일 등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Ⅰ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Ⅰ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Ⅰ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6.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금지 교육(청렴교육)


이리부천초등학교 교감 한희진

“ 불법찬조금 · 촌지 NO ”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를 제공하고, 과거 일부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촌지) 등 부패 관련사항 신고

◇ 부패신고 문의처

- 이리부천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한희진 063-831-8401



7. 공교육 정상화법과 선행학습 규제 안내

「선행학습 폐해」연수 자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 교육



전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라북도 서부 권역(익산,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럴 때 신고 도와주세요!!

학대의심사항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격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의 원가족 보호 거부, 부모에 대한 강한 두려움
- 언어장애, 신체발달 지하
- 발달 지연, 과잉행동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상담 및 신고전화

- 112
- 063-852-1391(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1~3세

- 신발을 혼자 신거나 벗을 수 있음
- 주의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 어른의 행동을 모방함
-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 친구들과 잘 어울림

-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기
-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여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만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함

3~5세

-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활동량이 많아짐
-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됨
-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함
- 호기심이 많아짐 • 규정을 들으면 토라짐
-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함

-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활동량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 규정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짖기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8~13세

- 자아가 형성되며 정체성을 확립하려 함
- 사회적 질서를 배워가는 시기
- 친구와 집단활동에 많은 중심을 둠
- 전성적 기질이 극대화 됨

-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경우 장기적인 문제 행동 교정 목표를 설정한다.
- 부모권(사랑, 인정)과 차례(기대, 지각)를 제공한다.
- 아동의 감정과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 (말동작, 독립적, 행동이 신중하거나 느림 등)
- 아동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과 벌칙을 실시

14~18세 청소년기

-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고를 시작함
- 심리적 불안정, 위험행동
- 이상관계에 중시
- 성인이라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함

- 아동의 심리를 조종해주고 교사외 의견을 말한다.
-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요나 압력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 작은 약속, 당장 상자가 기쁘면 일들로 보상을 실시한다.
- 아동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



아동학대 사례개입 과정

1. 신고 접수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112)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2. 현장조사 사례판단

- 학대의심시간에 대해 시범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하여 학대혐의 판단
-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응급조치(제지, 격리보호, 보호시설로 인도, 의료기관 인도) 실시

3. 조치결정 응급/임시조치

- **학대혐의 있는 경우**
 - 아동 : 긴급한 경우 응급조치(2시간 내), 아닌 경우 원가정 보호
 - 학대행위자 : 학대상황에 따라 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등), 고소고발, 지속관찰 실시
- **학대혐의 없는 경우**
 - 타 기관 연계, 일반 사례로 종결

4. 사건종치 및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 :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후견인 및 보호인 신청, 상담,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학습지원, 고소·고발 지원 등
- 학대행위자 :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법적 처분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사건, 아동보호 사건 등으로 처리)
- 기타 가족 :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가사지원 등)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유형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가 그 보호·양육·교육·감독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특별법 제 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신체학대

상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대린?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

보호자를 포함한 상인이 아동(만 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정서학대

상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금·약제, 기타 가혹적인 행위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고전화 112



9. 장애이해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I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의 유형으로는 일반학급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완전통합,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간제 통합, 전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전일제로 나누어집니다.

II 통합교육의 효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비 장애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 ① 비 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며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자존감 향상
 - 비 장애 학생과의 동등한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④ 낙인과 고립으로부터의 탈출
 -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통해 낙인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⑤ 연령에 맞는 폭 넓은 교육
 -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에서는 누리기 힘든 폭 넓은 교육을 통합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 장애 학생

- 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 ③ 장애학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
 -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 ④ 인권감수성의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Ⅲ 통합교육 Q&A

-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여러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 ☐ 선생님,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 소수의 장애학생에게 시설정비, 특수학급 운영, 각종 지원 등 비 장애학생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요?
 - 역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학생은 장애 때문에 비 장애학생과 출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출발선 상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등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 ☐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호자에게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호자의 결정입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장애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것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사들끼리 공유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요?
 - 아닙니다. 담임, 보건, 상담, 특수교사는 반드시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과담당 교사들도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에 관한 정보와 무관한 신상정보 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해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살펴본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장애학생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도와 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장애는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0. 흡연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

1 담배 해부하기

- 담배 연기 속에는 담배 잎과 담배 종이가 타면서 4000여종의 화학 물질들이 기체나 입자 형태로 섞임.

CO-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 주원인)	Hydrogen Cyanide- 청산가리 (사형가스실에서 사용되는 독극물)
Acetone- 아세톤 (페인트 제거제)	Toludine- 톨루이딘
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 (매운맛, 최루탄 사용)	Ammonia- 암모니아
Naphthylamine- 나프틸라민 (방부제)	Urethane- 우레탄 (산업용 용제)
Methano- 메탄올 (로켓연료)	Arsenic- 아세닉(비소, 쉼개미의 독)
Pyrene- 피렌	Dibenzacridine- 디벤즈아크리딘
Dimethylnitrosamine 디메틸니트로사민 (발암물질)	Phenol- 페놀 (선탁산, 소독제)
Napthalene- 나프탈린 (증약)	Butane- 부탄 (라이터의 원료)
Nicotine- 니코틴 (살충제, 제초제, 마약)	Polonium 210- 폴로늄 210 (방사선)
Cadmium- 카드뮴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	DDT- 디디티 (살충제)
Carbon Monoxide- 카본 모노옥사이드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있는 독성가스)	Tar- 타르
Benzopyrene- 벤조피렌 (강력한 발암물질)	Vinyl Chloride- 비닐클로라이드 (PVC 원료)

- 타르
 - 독성이 매우 강하여 화초의 제충이나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를 구충하는데 이용
- 일산화탄소
 -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은 양의 무연탄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것으로 혈액의 산소 운반능력이 떨어져 만성 저산소증 현상 일으킴
- 니코틴
 - 니코틴은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 말초 혈관 수축
 - 적은양의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흥분 일시적 쾌감
 - 많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마비 환각 상태까지 발생
- 그 외 담배 속의 주요 유해물질

- 비소 : 개미 살충제로 사용	- 암모니아 : 세척제로 사용
- 부탄 : 불 붙이는 점화액으로 사용	- 카드뮴 : 재충전 배터리에 사용
- 일산화탄소 : 차 배기가스에 포함	- 청산가리 : 쥐약으로 사용
- 포름알데히드 : 시체 방부제로 사용	- 메탄올 : 제트기 연료로 사용

2 흡연과 질병

- 흡연은 모든 암의 주된 위험 요인.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가량 높고 후두암의 경우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나 높아짐

3 간접흡연

- 담배연기는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
- 담배연기 속 50가지 발암물질 및 돌연변이 유도물질, 기형발생 물질 포함 약 4,000여 가지의 독성물질
- 중금속은 미량으로도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낮은 미량의 노출로도 어린이의 지능지수가 낮아짐
- 신생아나 영아에게 영유아돌연사의 원인
- 흡연자 몸과 옷에 묻어있는 독성물질, 실내의 표면에 들러붙은 담배독소에 의한 피해도 간접흡연과 같은 피해.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



11.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교육

참고자료 1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불안해한다든지(금단),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사용시간을 늘리고 있고(내성), 그 결과 정상적으로 공부나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서 장애를 많이 느끼는 상태(일상생활장애)를 말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세계에 몰입돼 있는 상태(가상세계지향)를 의미한다.

1. 스마트폰 중독의 종류

- 가. 모바일게임 중독
- 나. 모바일 메신저 중독
- 다. 모바일 성인콘텐츠 중독
- 라. 모바일 검색 중독
- 마. 앱 중독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1599-0075
- 나. Wee센터 117
- 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 www.kyci.or.kr
-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마.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577-0199, nmhc.or.kr

참고자료 2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1.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가. 안구건조증 및 시각 장애 : 조그만 화면에 병적으로 집중하여 쳐다보는 것이 계속되면 눈물분비에 문제가 생겨 안구가 건조하게 된다. 그 결과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막 비비게 되어 눈에 또 다른 질환이 생 각 게 된다. 결국 시각 장애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나. 거북목 증후군 :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목을 앞으로 과도하게 오랫동안 숙이게 되어 거북이 목과 같이 변형되는 수가 있다. 거북목 증후군은 척추의 자세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허리가 C자가 아닌 L자로 만들어 디스크 증상을 초래하게 하기도 한다.

다. 손목터널 증후군 : 인터넷 중독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손가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으로

써, 손목과 팔이 시리거나 저리는 마비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라. 심리적 불안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못할 정도로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경험한다. 그 결과 공부에 몰두할 수도 없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마. 우울해지고 산만해짐 :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의 문자, 메지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다른 공부나 이야기, 일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진다.

바. 부모와 심각한 불화 : 공부, 식사, 수면, 가족 간 대화를 할 때도 계속 스마트폰만을 들고 있게 되기에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두고 부모님과 계속 마찰을 하게 된다.

사. 경제적인 문제 :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통신비 지출, 앱 사용으로 인한 비용지출,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기에 연루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2. 연령별 스마트폰중독의 실태

<연령별 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



[출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www.iapc.or.kr/자료실)

참고자료 3 스마트폰중독예방 학급규칙

1. 필요할 때만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시 바른 말을 사용한다.
3. 수업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지 않는다.
4.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설정한다.
5.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의를 받는다.
6. 부모님께 고가의 휴대전화구입이나 잦은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7. 결제 있고 계획적인 휴대전화사용으로 요금을 절약한다.
8. 성인음란물 및 불건전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는다.



12. 감염병 예방 학부모 연수자료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조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확인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 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및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생: 종합성장보고서
- 교사: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에 대한 종합기록
- 법정장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 자료

■ 학교생활기록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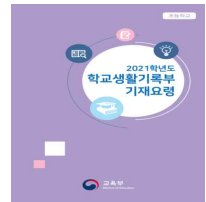
- ① 초중등교육법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초등 학교생활기록 기재항목

학생 기본사항	비교과 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안전한생활 시간&특기사항)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

■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하는 내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때에 따라 기재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 개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기재됩니다.



■ 2021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2020	2021	개정 사유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 처리 *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 같음할 수 있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 지원
-학생선수→초20일 범위 내 허용 가능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시	-학생 선수→초10일 범위내 허용 가능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시,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가 기준 변경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특기사항: 담임교사 -동아리활동특기사항: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진로활동 특기사항: 담임교사	(추가) -안전한생활: 담당 교사	항목별 입력 주체 명료화
-	(신설)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	질병결석 시 결석계 제출 기한 명료화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안내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을 근거로 당해학년도의 교과학습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안내

-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4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학교,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생 · 학부모가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개 인 정보는 소중한 내! 동의 없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마세요!
※ 학원, 교습소 등 영리 사업자

인 스타그램 등 SNS, 메신저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세요!

정 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은 반드시 주의 하세요!

보 호자 동의 없는 회원가입 웹사이트(게임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수

스스로 지키는 나의 개인정보! 내가 먼저 확인하고 보호 합시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 사이버 폭력의 유형 예시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들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 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들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방안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카카오톡, 카카오토티 등)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이버폭력 징후 - 사이버 폭력의 징후를 알고 자녀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 ① 불안한 기색으로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②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온다.
- ③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④ SNS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 ⑤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사이버 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만일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①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②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며 아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 ③ 자녀가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④ 가해자를 직접 만나 보복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대처요령과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문자 상담/신고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전화 상담/신고

117

(사이버폭력 신고전화)

모바일 앱 상담/신고

117Chat

스마트 안심드림

온라인 상담/신고

www.wee.go.kr

(학생위기상담종합서비스)

정보통신윤리교육

-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알람시계로 사용시간 수시확인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기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지침**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 **인터넷, 게임 이용 관리**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http://www.iapc.or.kr>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 pc 사용 관리 : 그린 I-net <http://www.greeninet.or.kr>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 스마트보안관, 아이스마트키퍼 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
 -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
 -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바스토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